

# '김용판 무죄' 여야 다시 대치정국 치달나

## 야권 '정권 차원 무죄 만들기 공작' 규정...특검 공동 대응 여 "법무·교육 장관 해임건의안 용인 않겠다" 맞불 태세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이 2월 임시국회 정국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야권이 이를 '정권 차원 무죄 만들기 공작'으로 규정,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자 새누리당도 "사법부가 짜맞추기 수사와 야권의 대선 불복 공작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교회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과 관련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함께 제출했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해임건의안도 내기로 하는 등 전면전 태세에 들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위한 회담을 여러 차례 촉구하면서 불응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회 의사일정 보이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민주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지난해 12월3일 합의문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특검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회담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강력한 문

제제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검 관철 등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8일 기자들과 만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민

주당, 정의당과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원은 10일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 요구를 '3권 분립 훼손'으로 일축하면서 민주당을 '대선 불복 세력', '정쟁 유발 세력'으로 규정 짓고 야당에 대해 맞선다는 각오다.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민주당 방침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용인하지 않았다. 또 공언한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의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여·야·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 기초연금을 비롯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에는 원전비리 예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안, 대표적 창조경제 법안인 과학기술기본법안과 우주개발진흥법안,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이처럼 여야가 다시 극한 대치 조짐을 보이는 배경에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기 싸움의 측면도 적지 않다. 예비후보 등록 개시로 선거전의 서막이 오른 만큼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선거 이슈를 주도해 나가려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운데), 정병원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등이 휴일인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관철 등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한길, 강원·영남 '민심투어' 마무리

## "대통령 대선개입 의혹 해소...與 특검 수용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새누리당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경남을 끝으로 2박3일간의 강원·영남 지역 '민심투어'를 마무리했다.

전날 부산에서 1박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지역 핵심 당원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진통시장을 방문,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부산시청 후보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무소속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과의 연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쟁력 있는 당의 후보

물색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창원에서는 경남 지역 언론인과 오찬 간담회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 지금까지 문과 개고 침묵한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또 경남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김두관 전 지사의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 자리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 대표는 부인인 탤런트 최명길씨와 함께 지난 8일부터 3일간 강원, 경북, 대구, 울산을 거쳐 이날 부산·경남까지 돌며 민심을 살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 윤진숙 후임 인선 촉각

## 지방선거 압박해 부담...부분개각 요구도

새누리당이 지난 7일 전격 결정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윤 전 장관에 대한 정중문 회의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야당이 공세가 불을 보듯 뻔해 새누리당으로서 무척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6·4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여당 입장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각료들의 '실언(失言)'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다만 각료들의 잦은 실화(失語) 때문에 이반된 민심을 충분히 추스르려면 후임 인선도 무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

신중을 신중을 기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인사 검증과 후임 장관 내정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하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6월 지방선거가 압박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야당이 공세가 불을 보듯 뻔해 새누리당으로서 무척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인사청문회가 자칫 야당의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개각이 힘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금주부터 줄줄이 '카드청문회'

## 국회 3개 상임위 개인정보 유출 추궁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둘러싼 국회 정부 위·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금주부터 2주 동안 줄줄이 열린다.

정무위는 지난 7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이미 국정 활동에 착수했다. 종일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은행연합회·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차례로 방문해 실태조사를 마친데 이어 오는 13일에는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안전행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 18일에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신재운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고객정보 유출에 연루된 카드 3사와 KCB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안행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유출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하루 뒤인 19일 입법청문회를 실시한다. 안행위 청문회에는 유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하경 위원장을 비롯해 카드 3사와 KCB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유출 실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진술한다.

미방위는 이에 앞서 13일 입법청문회를 실시기로 했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 사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위임한 상태다. 미방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여야가 앞다퉀 발의한 제발법지책 관련 법안들을 중점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강기정 '신용정보 유출피해구제법' 발의

##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주요 골자

민주당 신용 및 개인정보 대량유출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은 9일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한편 2차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 유출 피해구제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신용정보 유출을 손해로 보고 법원이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액피해자들의 집단

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은 금융당국의 무능한 관리와 감독, 그리고 이를 활용한 금융회사들의 신용정보의 부적법적 활용이 빚어낸 국가적 재앙이지만 정작 피해자인 국민의 피해는 개인적 책임으로 하고 있다"면서 "장래의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임내현, 남극 장보고 기지 등 방문차 출국

## 국회의장 외교대표단 일원

민주당 임내현(광주 북구 을) 의원이 오는 22일까지 국회의장 외교대표단 일원으로 남극 장보고기지와 뉴질랜드, 호주 등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8일 출국했다. 임 의원은 이번 순방에서 국내 최초 남극대륙 내 과학 기지인 장보고 기지 준공식에 참석해 극지 과학연구 활동을 살펴볼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이어 한국전 참전국인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해 한·뉴 FTA 협상의 조속 타결 임정을 표명하고 뉴질랜드 군 전력 강

화와 인프라 분야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호주에서는 상·하원 의장을 예방하고 한·호주FTA 실질적 타결 이후의 절차를 논의한다. 임 의원은 또 국내 기업의 호주 자원개발사업 진출과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지원,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호주 측의 협력을 당부하는 등 의원의 외교 활동을 펼친다. /\*최권일기자 cki@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탁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탁**

| 공동본점 227-4474  
| 금호지점 383-4474  
| 풍암지점 653-4474

**公國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8기)	광주교육대학교(9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4. 3. 7.(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4. 3. 8.(토) 09: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 2014. 3. 3.(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4. 3. 6.(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3. 8.(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4. 1. 23.(목)~3. 8.(토)	2014. 1. 23.(목)~3. 8.(토)
수업기간	2014. 3. 7.(금)~2014. 8. 16.(토) (5개월 24주 96시간)	2014. 3. 3.(월)~2014. 8. 16.(토) (5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공주예대) 공주은행 146-107-307803	₩360,000 (예금주·공주예대) 우체국 530557-01-005018
수료후 특전	-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행정 경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서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봉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시범취득기회 부여	-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행정 경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서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봉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시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520-4243 -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없음, 후불제(착수금) (법 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1 연수일정(2014년 제12기)**

- 개강일시: 2014. 3. 3(월) 초급아간 18:30 / 국가공인 기관 시험 중급아간 18:3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4. 2. 3(월)~2014. 3. 7(금)
- 수업기간: 2014. 3. 3(월)~2014. 6. 20(금)(총 90시간)
- 수 강 료: ₩360,000
- 모집인원: 초급 아간: 30명(민간자격) / 국가공인 기관 시험 중급 아간: 30명(국가공인자격+민간자격도 동시취득)

※ 기초가 부족하면 초급반에 지원하며, 수료시 중급반에 자동 진급하고 초급반 수료 정도의 기초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중급반에 지원 할 수 있음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금요일 초급·중급 모두 18:30 ~ 21:30(3시간 수업)
- 수료 후 특전: 초급·중급 연수과정 수료시 /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시험 / 한문지도사 시험 합격 시 행정 / 국가공인 2급이상 한문지도사 시험응시 / 국가공인 기관 시험 / 연수과정 중 /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현문학회 감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노인 복지 및 각급 사회복지기관 강사 취업
- 초·중등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한문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062)530-7873-3876
-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0-8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예금주: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e.go.kr